

# 경제주평

- 본격적인 수출-내수 동반 침체의 시작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2년 4분기)

# 목 차

---

## ■ 본격적인 수출-내수 동반 침체의 시작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2년 4분기)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	2
3.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과 경기 전망 .....	12
4. 시사점 .....	16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 제 연 구 실 : 주 원 경제연구실장 (02-2072-6235, juwon@hri.co.kr)

##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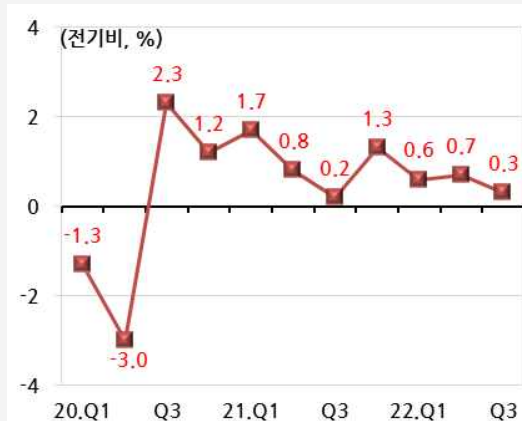
### □ 본격적인 수출-내수 동반 침체의 시작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2년 4분기)

#### ■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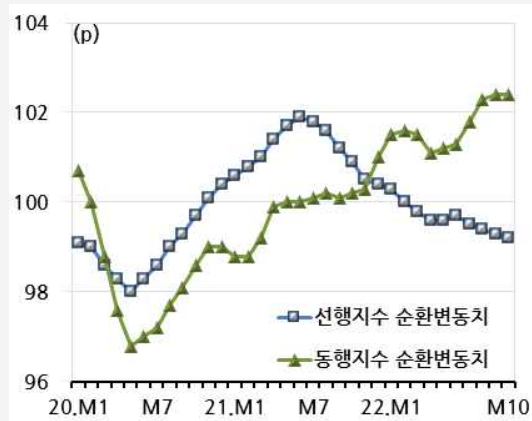
**(경기 하강 시작)** 경제성장률 둔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선행지수가 장기간 하락하면서 본격적인 경기 하강 국면 진입이 예상된다. 3분기 경제성장률은 민간 소비의 활력 약화와 외수(순수출) 부문의 위축으로 2022년 2분기의 전기대비 0.7%에서 0.3%로 하락하였다. 이는 고정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전분기 대비 확대(2분기 0.1%p → 3분기 0.9%p)하였으나, 민간소비의 기여도가 축소(1.3%p → 0.8%p)되고, 순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1.8%p)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경제 성장세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장기간 하락세를 지속 중인 가운데, 10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더 이상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9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경기 전환점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21년 6월(101.9p) 정점을 형성한 이후 하락 추세를 지속하면서 이미 경기 하강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에 더하여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10월에 들어 102.4p(9월과 동일한 수준)를 기록하며 반등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전환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분기 경제성장률 >



자료: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순환변동치 >



자료: 통계청.

#### ■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 (1)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

**(소비 위축)** 소비 시장은 고물가 및 고금리에 따른 가계 구매력 감소와 미래 불확

실성 확대로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10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월비  $\Delta 0.2\%$ 로 9월( $\Delta 1.9\%$ )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특히, 부문별로는 일회성 소비인 비내구재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향후 소비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내구재 소비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설비투자 부진)** 전반적인 설비투자는 부진한 모습이나,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악화 정도를 고려하면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10월 계절조정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운송장비가 감소하였으나 기계류 투자가 증가하면서 9월 수준과 비슷한 규모를 기록하였다. 한편, 10월 원계열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16.8%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설비투자 선행지표를 보면 10월에 들어 국내기계수주액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자본재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8.1%나 증가하면서 아직까지는 국내 투자 수요가 크게 위축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 수주 급감)** 10월에 들어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선행지표인 수주가 급감하였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10월에 들어 공공과 민간 부문이 모두 호조세를 보였다. 10월 건설기성액 증가율(전년동월대비)은 15.4%로 올해 들어 증가세를 지속 중이다.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문이 9월 부진하였으나 10월에 반등(전년동월대비 8.2%)하는 모습이며, 민간 부문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18.0%)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향후 건설 경기 상황을 예고해 주는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9월의 증가세(전년동월대비 43.8%)에서 10월( $\Delta 40.5\%$ )에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발주자별로도 공공 부문 수주가  $\Delta 20.0\%$ , 민간 부문 수주도  $\Delta 44.9\%$ 로 크게 침체되는 모습이다.

**(수출 경기 침체 본격화)**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 11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Delta 14.0\%$ 로 지난 10월( $\Delta 5.7\%$ )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한편, 11월 수출 감소는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IT 제품 가격이 큰 폭의 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수출 단가가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미국 등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對중국 수출 침체가 심각한 모습이다. 11월 중 시장별로는 對미국(11월 중 전년동월대비 8.0%), 對EU(0.1%) 등의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對아세안( $\Delta 13.9\%$ ) 수출이 감소하고 최대 시장인 對중국( $\Delta 25.5\%$ ) 수출이 지난 6월( $\Delta 0.8\%$ )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Delta 29.8\%$ ), 무선통신기기( $\Delta 18.7\%$ ) 등 IT 품목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동 시장 안정)** 엔데믹에 따른 시장 수요 확대로 양적인 고용 상황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10월 중 전체 실업률은 2.4%로 전년동월(2021년 10월 2.8%)에서 개선되었으며, 10월 확장실업률도 9.5%로 전년동월의 11.7%보다 하락하였다. 한편, 10월 청년실업률(15~29세)은 5.6%로 전년동월(5.6%)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청년

확장실업률은 17.5%로 전년동월(20.3%)보다 개선되었다. 한편, 10월 신규취업자(취업자 수 증감)는 전년동월대비 67만 7,000명으로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역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 폭은 감소 중이다.

**(인플레이션 완화)**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추세적 하락세가 전망된다. 우선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을 보면 10월 중 수입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면서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고 있다. 10월 수입물가 상승률은 자본재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원재료, 중간재, 소비재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9월보다 낮은 전년동월대비 19.8%를 기록하였다. 특히, 환율 효과가 제거된 달러화 기준 수입물가 상승률은  $\Delta 0.7\%$ 로 크게 낮아져 있다. 10월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전력·가스·수도·폐기물 및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으나, 농림수산물 및 공산품 상승률이 하락하면서 전월대비 낮아졌다(9월 7.9%, 10월 7.3%). 한편,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5.0%로 10월의 5.7%에서 크게 둔화되었다. 이는 전기·수도·가스, 공업제품 등의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서비스 등이 비교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최근의 원자재가 하락과 환율 하락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향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낮아지는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심리 급랭)** 고금리에 따른 부채 상환 부담 증가 및 기업 자금 시장 경색, 대내외 경기 침체 우려 확산 등으로 가계 및 기업 심리가 냉각되었다.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86.5p를 기록하며 지난 6월 이후 6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 중이다. 부문별로는 가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CSI가 10월에 47p에서 11월 46p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미래 경기에 대한 가계의 전망을 의미하는 향후경기전망 CSI도 11월 54p로 10월(56p) 대비 하락하였다. 한편, 기업 체감 경기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2월 중 한은 BSI와 전경련 BSI가 모두 크게 하락하며 최근 약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전경련 BSI(전망)는 12월 85.4p로 '20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 중이며, 한은 BSI(전국/전산업/업황전망)도 '21년 1월 이후 최저치(12월 74p)이다.

## (2) 산업별 경기 동향

**(전산업)** 10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비  $\Delta 1.5\%$ 로 지난 7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제조업**은 생산이 감소하고 가동률이 급락하는 침체 국면이 진행 중이나, 출하가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재고 증가율이 빠르게 낮아지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서비스업**은 9월에 이어 10월에도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최근 내수 시장의 활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건설업**은 업종 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10월에 들어 토목 부문과 건축 부문이 모두 크게 감소하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 ■ 향후 경기 위험 요인과 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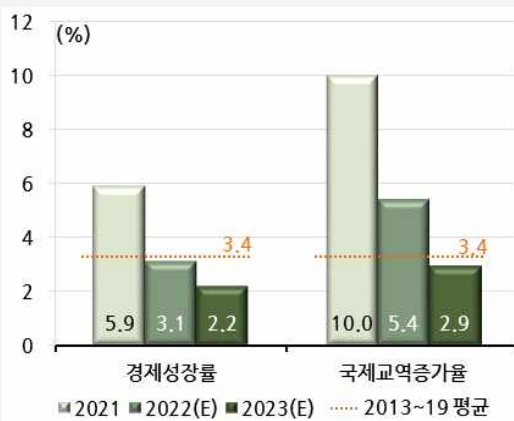
### (1) 경기 방향성 결정 위험 요인

현재 한국 경제에는 ① 세계 경제 불황에 따른 수출 침체, ② 국지적 리스크 재확산에 따른 공급망 불안, ③ 고금리에 따른 내수 시장 위축 등의 리스크 요인이 존재한다.

#### ① 세계 경제 불황에 따른 수출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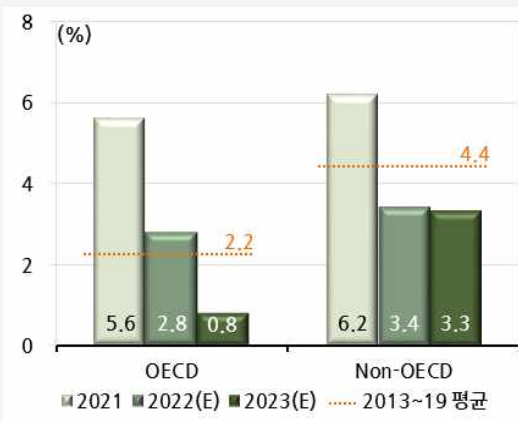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지면서 수출 경기의 급랭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제 기관들은 일제히 2023년 세계 경제 상황이 코로나 이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IMF와 OECD의 최근 경제 전망 보고서의 공통점은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2022년보다 크게 하락한다는 것과 개도국/신흥국보다 선진국 경제성장률의 하락 폭이 더 크다는 점이다. 특히, OECD의 자료에서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2%로 2013~19년 연평균 증가율 3.4%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2023년의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활력은 상당히 취약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세계 경제의 불황과 교역 시장의 수요 위축이 현실화되면서 우리 수출 경기의 침체 국면 진입이 불가피해 보인다.

< 세계 경제성장률 및 교역증가율 전망 >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 OECD 및 비OECD 경제성장률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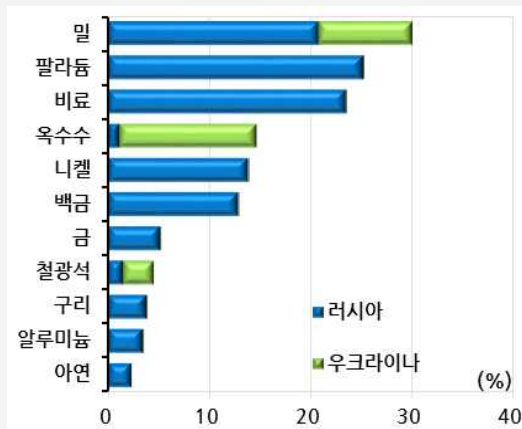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 ② 국지적 리스크 재확산에 따른 공급망 불안

2022년 말 2023년 초의 시기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및 중국의 방역 상황 등의 불확실성으로 공급망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어,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럽 천연가스 가격(ICE TTF 선물, EUR/Mwh)은 11월 25일 현재 124.4유로로 지난 8월 26일 연중 최고치 339.2유로보다는 안정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럽 지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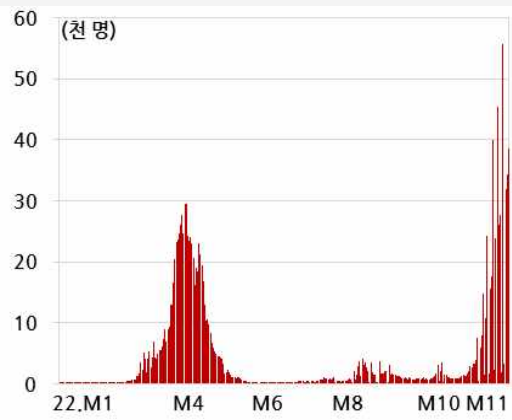
에너지 성수기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경우, 가스, 석유 등의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원자재 시장 전반의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최근 중국의 확진자수 급증과 도시봉쇄 조치로 중국 내 물류망이 단절되면서 중국산 원부자재 조달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022년에 들어 세계 팬데믹 상황은 안정되는 추세이나,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신규확진자수를 보면 지난 11월 23일 5만 5,616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치였던 지난 4월 14일(2만 9,520명)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이러한 방역 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주요 도시 봉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국산 중간재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산 원자재의 세계시장 대비 비중(2020년 기준)>



자료: OECD.

< 중국 COVID-19 신규확진자수 추이 >



자료: Our World in Data.

### ③ 고금리에 따른 내수 시장 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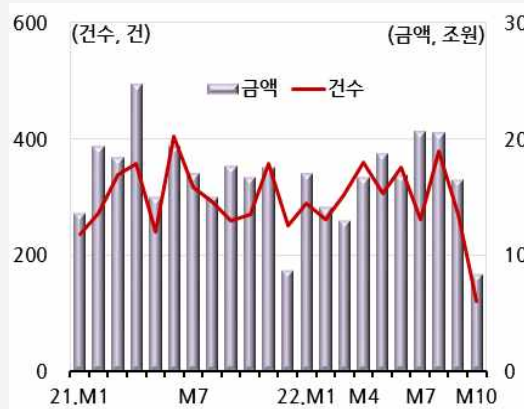
과도한 금리 상승의 속도에 민간 경제주체들이 적응할 시간이 없어, 가계의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기업 자금 조달 시장이 경색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동반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금리에 따른 부채 상환 부담이 급증하면서, 가계의 구매력이 위축되고 소비 심리가 악화되는 모습이다. 가계대출 금리 선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PIX)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10월 현재 3.98%로 1년 전(2021년 10월 1.29%) 대비 3배가 급등하였다.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과 경기 불황 우려까지 가세하면서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6월 기준치(100p)를 하회한 이후 침체를 지속하면서 11월 현재 86.5p에 그치고 있다. 한편, 고금리의 영향은 기업 자금 조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 투자 침체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10월 회사채 발행액은 8조 3,000억 원으로 9월(16조 원) 대비 약 절반 규모로 축소되었으며, 발행 건수도 같은 기간 270건에서 120건으로 축소되었다. 최근 주식시장의 약세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고, 고금리로 간접금융(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 비용도 높은 상황에서 채권시장에서의 자금 조달마저 위축되면서 투자 침체가 우려된다.

&lt; 코픽스금리 및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gt;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은행.

&lt; 회사채 발행 건수 및 금액 추이 &gt;



자료: 금융감독원.

## (2) 현 경기 판단 및 향후 경기 전망

**(현 경기 판단)** 2022년 4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이 침체되고 내수 활력이 크게 약화되는 국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수출이 2개월 연속 감소 중인 가운데, 내수에서는 건설기성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가 정체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향후 경기 전망)** 2023년에는 수출에 이어 내수도 본격적으로 침체되는 국면 진입이 예상되며, 이후 대내외 여건에 따라 'U'자형 또는 'L'자형의 경기 추세를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시나리오별 경기 추세를 보면, **중립적 시나리오(U자형)**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의 충격이 이어지면서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이 지속되나, 2023년 어느 시점에서 반등의 전환점이 마련되면서 완만하게 회복되는 'U'자형 경기 추세를 보이는 경로를 가진다. 다음으로 **비관적 시나리오(L자형)**에서는 2023년에도 경기 반등의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침체가 2024년까지 이어지는 'L'자형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종전 등과 같은 긍정적 이슈로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는 경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 시사점

한국 경제가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 국면으로부터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향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 안정'이 아닌 '**불황 극복**'에 두고, 침체의 폭과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기 변동성 완화**'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최근 경제 심리의 급격한 냉각에 대응하여 **소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의 주된 성장 동력인 수출 경기 급랭을 막기 위하여, 민·관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과 대응 여력이 취약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건설업 불황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획된 **주택공급 정책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추진**과 전방 산업인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경기 침체는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복지 정책의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1. 개요

○ (경기 하강 시작) 경제성장률 둔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선행지수가 장기간 하락하면서 본격적인 경기 하강 국면 진입을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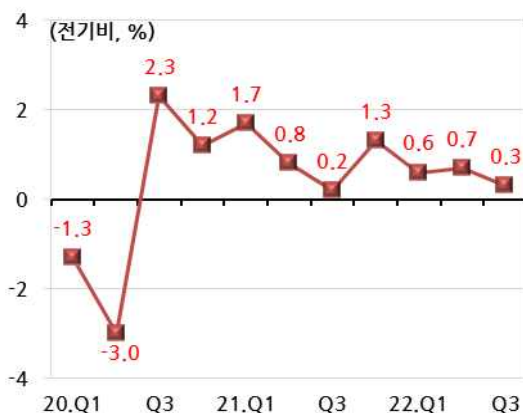
- 3분기 중 민간소비의 활력 약화와 외수(순수출) 부문의 위축으로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3%를 기록

- 2022년 3분기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고정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전분기 대비 확대(0.1%p → 0.9%p)됨
- 그러나, 민간소비의 기여도가 축소(1.3%p → 0.8%p)되고, 순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 $\Delta 1.8$ p)를 기록하면서 2022년 2분기의 0.7%에서 0.3%로 하락함

- 한편,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장기간 하락세를 지속 중인 가운데, 10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더는 반등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9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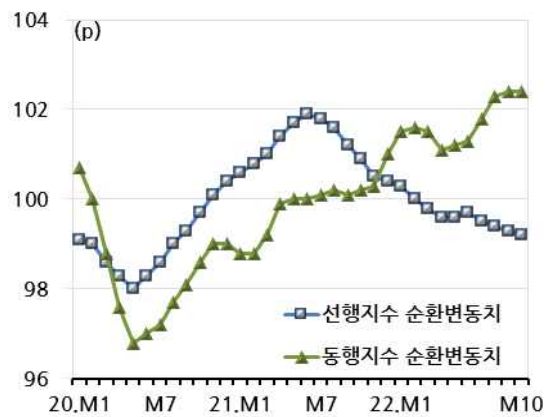
-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10월 102.4p로 9월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함
  -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7월 101.8p, 8월 102.3p, 9월 102.4p, 10월 102.4p
- 한편, 미래 경기 방향을 예고하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 '21년 6월(101.9p) 정점을 형성한 이후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7월 99.5p, 8월 99.4p, 9월 99.3p, 10월 99.2p

< 분기 경제성장률 >



자료: 한국은행.

<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순환변동치 >



자료: 통계청.

## 2. 수요부문별 및 산업별 경기 동향

### (1) 수요부문별 경기 동향

○ (소비 위축) 소비 시장은 고물가 및 고금리에 따른 가계 구매력 감소와 미래 불확실성 확대에 침체 국면에 진입

- 10월 소매판매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구매력 약화의 영향으로 9월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10월 전월비  $\Delta 0.2\%$ 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임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MoM): 7월  $\Delta 0.4\%$ , 8월  $4.4\%$ , 9월  $\Delta 1.9\%$ , 10월  $\Delta 0.2\%$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7월  $\Delta 1.9\%$ , 8월  $2.4\%$ , 9월  $\Delta 0.8\%$ , 10월  $\Delta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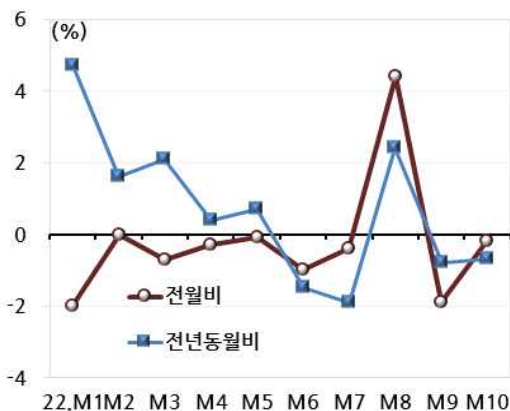
- 부문별로는 일회성 소비인 비내구재 소비가 증가하였으나, 향후 소비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내구재 소비가 크게 위축

· 내구재 소비는 통신기기·컴퓨터 등이 증가하였으나, 승용차, 가전, 가구 등이 감소하면서 9월(전월비  $5.4\%$ )의 증가세에서 10월( $\Delta 4.3\%$ ) 감소세로 전환됨

※ 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MoM): 7월  $\Delta 0.8\%$ , 8월  $4.4\%$ , 9월  $5.4\%$ , 10월  $\Delta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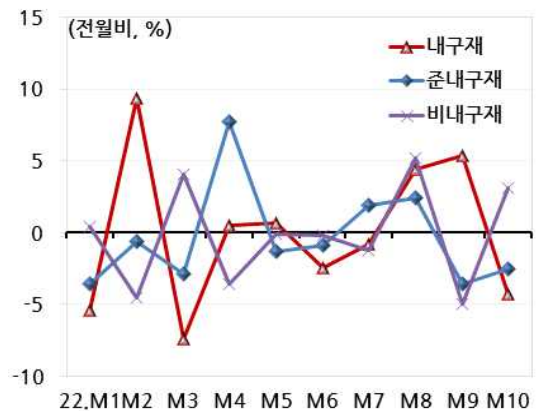
※ 비내구재판매액지수 증가율(MoM): 7월  $\Delta 1.2\%$ , 8월  $5.2\%$ , 9월  $\Delta 5.0\%$ , 10월  $3.1\%$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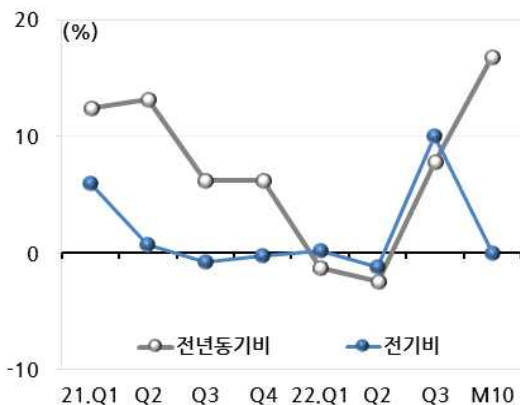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설비투자 부진) 3분기 이후 전반적인 설비투자가 호조세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최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경우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

- 10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로는 정체, 전년동월대비로는 16.8% 증가율을 기록
  - 계절조정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운송장비가 감소하였으나 기계류 투자가 증가하면서 10월 전월비 0.0%를 기록함
    -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MoM): 2분기  $\Delta 1.2\%$ , 3분기  $10.0\%$ , 9월  $\Delta 2.2\%$ , 10월  $0.0\%$
  - 원계열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전년동월대비)은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10월 전년동월비 16.8%를 기록함
    -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2분기  $\Delta 2.4\%$ , 3분기  $7.8\%$ , 9월  $12.6\%$ , 10월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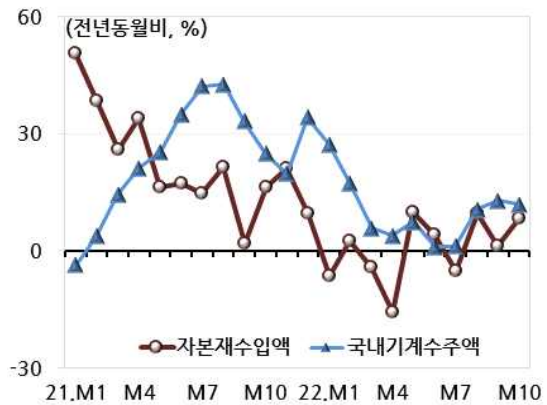
- 또한, 설비투자 선행지표를 보면 10월에 들어 국내기계수주액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자본재수입액은 크게 늘면서 반등하는 모습
  - 자본재수입액은 2022년 3분기 이후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음
    - ※ 자본재수입액증가율(YoY): 7월  $\Delta 5.3\%$ , 8월  $9.4\%$ , 9월  $1.1\%$ , 10월  $8.1\%$
  - 한편,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선박·선박용내연기관 제외)은 10월에 들어 감소하였으나, 추세적으로는 자본재수입액 증가율과 유사한 모습을 보임
    - ※ 국내기계수주액증가율(YoY)1): 7월  $\Delta 3.0\%$ , 8월  $33.8\%$ , 9월  $7.8\%$ , 10월  $\Delta 6.1\%$

< 설비투자 지수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주: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

1) 국내기계수주(선박·선박용내연기관제외)액 증가율의 실제치이며, 그림은 3개월 이동평균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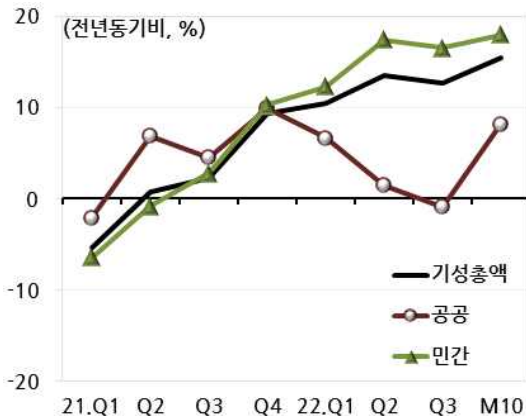
○ (건설 수주 급감) 10월에 들어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선행지표인 수주가 급감

-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10월에 들어 공공과 민간 부문이 모두 호조세를 시현
  - 10월 건설기성액 증가율(전년동월대비)은 15.4%로 연중 증가세를 지속 중임
    - ※ 건설기성 증가율(YoY): 2분기 13.5%, 3분기 12.7%, 9월 12.4%, 10월 15.4%
  -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문이 9월 부진하였으나 10월에 반등하는 모습이며, 민간 부문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 중임
    - ※ 공공건설기성 증가율(YoY): 2분기 1.5%, 3분기 △0.9%, 9월 △2.2%, 10월 8.2%
    - ※ 민간건설기성 증가율(YoY): 2분기 17.4%, 3분기 16.5%, 9월 15.9%, 10월 18.0%

- 반면, 향후 건설 경기 상황을 예고해 주는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9월 높은 증가세에서 10월에 들어 급감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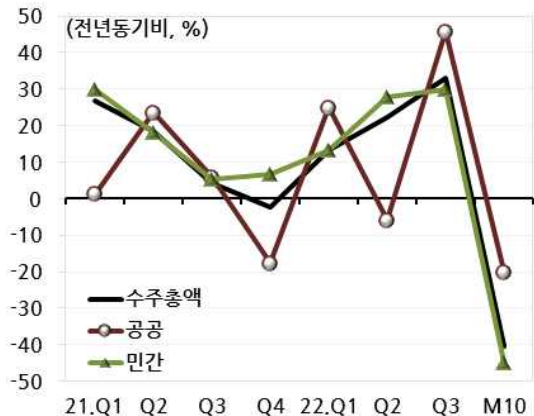
- 10월 공공 부문 수주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20.0%, 민간 부문 수주도 △44.9%를 기록함
  - ※ 건설수주 증가율(YoY): 2분기 22.3%, 3분기 33.2%, 9월 43.8%, 10월 △40.5%
  - ※ 공공건설수주 증가율(YoY): 2분기 △5.8%, 3분기 45.8%, 9월 65.4%, 10월 △20.0%
  - ※ 민간건설수주 증가율(YoY): 2분기 27.9%, 3분기 29.8%, 9월 39.3%, 10월 △44.9%
- 이는 최근 건설비의 상승, 전방산업인 부동산 시장의 위축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건설기성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건설수주액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수출 경기 침체 본격화)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는 모습

- 11월 수출 증가율이 10월에 이어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수출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

· 11월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Delta 14.0\%$ 로 지난 10월( $\Delta 5.7\%$ )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함

※ 수출액 증가율: 7월 8.6%, 8월 6.6%, 9월 2.7%, 10월  $\Delta 5.7\%$ , 11월  $\Delta 14.0\%$

· 한편, 11월 수출 부진은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수출 단가 하락이 주도함

※ 수출 물량 증가율: 7월  $\Delta 3.9\%$ , 8월 8.1%, 9월  $\Delta 2.4\%$ , 10월  $\Delta 11.2\%$ , 11월 17.8%

※ 수출 단가 증가율: 7월 12.6%, 8월  $\Delta 1.5\%$ , 9월 4.7%, 10월 5.5%, 11월  $\Delta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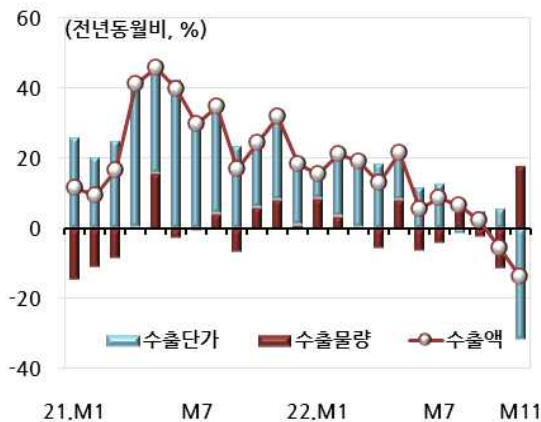
- 아세안, 미국 등에 대한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對중국 수출 침체가 장기화되는 모습

· 11월 중 시장별로는 對미국(8.0%), 對EU(0.1%) 등의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최대 시장인 對중국( $\Delta 5.4\%$ ) 수출 침체가 장기화됨

※ 對중국 수출증가율: 7월  $\Delta 2.7\%$ , 8월  $\Delta 5.3\%$ , 9월  $\Delta 6.7\%$ , 10월  $\Delta 15.7\%$ , 11월  $\Delta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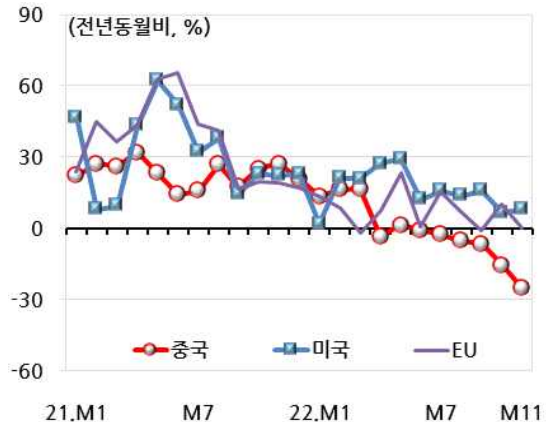
· 품목별로는 석유제품(26.0%), 자동차(31.0%), 이차전지(0.5%) 등이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Delta 29.8\%$ ), 무선통신기기( $\Delta 18.7\%$ ) 등 IT 품목이 침체됨

< 월별 수출 증가율 >



자료: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시장별 수출 증가율 >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 (노동 시장 안정) 엔데믹에 따른 시장 수요 확대로 양적인 고용 상황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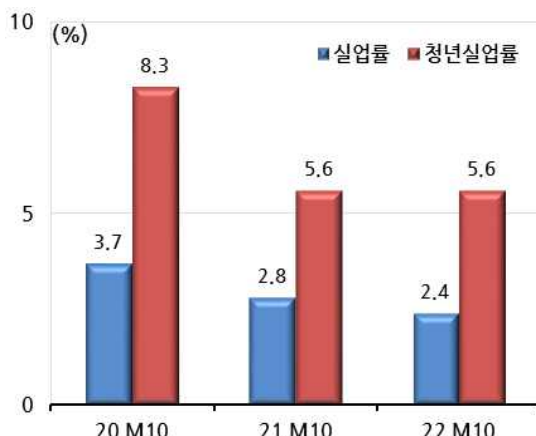
- 10월 중 전체 실업률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며, 체감 고용 상황을 나타내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 3)<sup>2)</sup>도 하락

- 10월 실업률은 2.4%로 전년동월(2021년 10월 2.8%)에서 개선되었으며, 10월 확장실업률도 9.5%로 전년동월의 11.7%보다 하락함
- 한편, 10월 청년실업률(15~29세)은 5.6%로 전년동월(5.6%)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청년 확장실업률은 17.5%로 전년동월(20.3%)보다 개선됨

- 10월 신규취업자(취업자 수 증감)는 전년동월대비 67만 7,000명으로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역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증가 폭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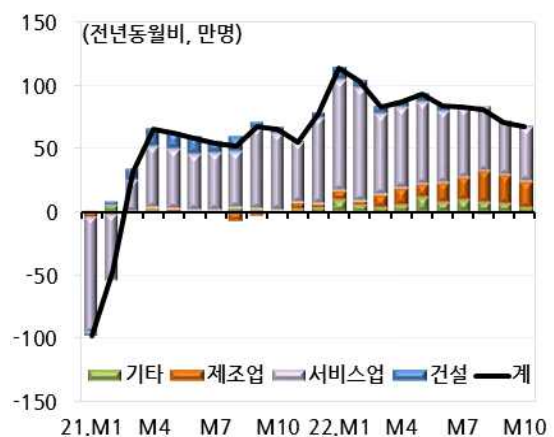
- 10월 중 취업자 수 증감분(전년동월비)은 67.7만 명으로 '21년 3월 이후 20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 ※ 취업자 증감(YoY): 7월 82.6만 명, 8월 80.7만 명, 9월 70.7만 명, 10월 67.7만 명
- 10월 중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비)은 제조업 20.1만 명, 건설업 1.2만 명, 서비스업 43.5만 명임

< 2020~22년 10월 기준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



자료: 통계청.

< 주요 산업별<sup>3)</sup> 취업자 증감 >



자료: 통계청.

2) 고용보조지표3(%) =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 ÷ 확장경제활동인구 × 100.

3) 기타는 광업, 유틸리티,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합계임.

○ (인플레이션 완화)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추세적 하락세가 전망

- 10월 중 수입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하면서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는 모습

- 10월 수입물가 상승률은 자본재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원재료, 중간재, 소비재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9월보다 낮은 전년동월대비 19.8%를 기록함. 한편, 환율 효과가 제거된 달러화 기준 수입물가 상승률은  $\Delta 0.7\%$ 를 기록함
  - ※ 수입물가 상승률(YoY): 7월 25.6%, 8월 22.9%, 9월 24.2%, 10월 19.8%
- 10월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력·가스·수도·폐기물 및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으나, 농림수산물 및 공산품 상승률이 하락하면서 전월대비 하락함
  - ※ 생산자물가 상승률(YoY): 7월 9.2%, 8월 8.2%, 9월 7.9%, 10월 7.3%

-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5.0%로 10월의 5.7%에서 크게 둔화

-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기·수도·가스, 공업제품, 외식서비스 등이 크게 올랐으나, 농축수산물, 공공서비스 등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 전년동월 대비 5.0%를 기록함
  - ※ 소비자물가 상승률(YoY): 7월 6.3%, 8월 5.7%, 9월 5.6%, 10월 5.7%, 11월 5.0%
- 체감물가지표인 생활물가 상승률도 10월 6.5%에서 11월 5.5%로 하락함
  - ※ 생활물가 상승률(YoY): 7월 7.9%, 8월 6.8%, 9월 6.5%, 10월 6.5%, 11월 5.5%

<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상승률 >



자료: 한국은행. 주: 전년동월대비 기준.

<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 상승률 >



자료: 통계청.

○ (경제 심리 급랭) 고금리에 따른 부채 상환 부담 증가 및 기업 자금 시장 경색, 대내외 경기 침체 우려 확산 등으로 가계 및 기업 심리가 냉각되는 모습

-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86.5p를 기록하며 지난 6월 이후 6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

· 부문별로는 가계의 현재 경기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 CSI가 10월에 47p에서 11월 46p로 소폭 하락함

※ 현재경기판단 CSI: 6월 60p, 7월 43p, 8월 47p, 9월 50p, 10월 47p, 11월 46p

· 향후경기전망 CSI도 11월 54p로 10월(56p) 대비 하락함

※ 향후경기전망 CSI: 6월 69p, 7월 50p, 8월 58p, 9월 62p, 10월 56p, 11월 54p

- 12월 중 한은 BSI와 전경련 BSI가 모두 크게 하락하며 최근 2년 내 최저치를 기록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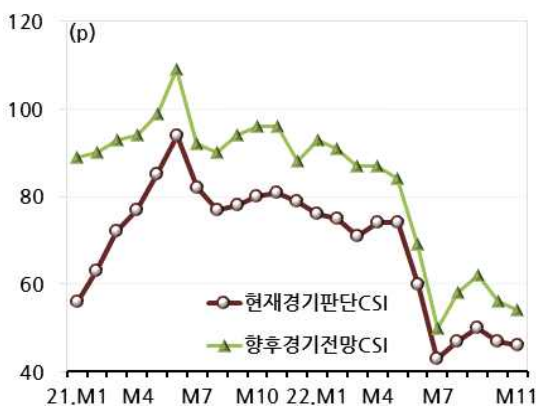
· 전경련 BSI(전망)는 12월 85.4p로 '20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전경련 BSI(전망): 6월 96.3p, 7월 92.6p, 8월 86.9p, 9월 95.8p, 10월 89.6p, 11월 86.7p, 12월 85.4p

· 한은 BSI(전국/전산업/업황전망)도 '21년 1월 이후 최저치(12월 74p)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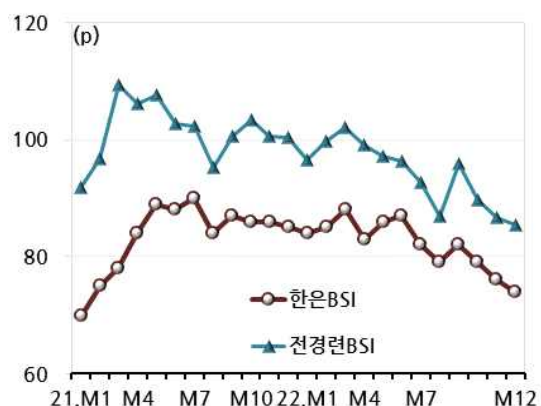
※ 한은 BSI(전국/전산업/업황전망): 6월 87p, 7월 82p, 8월 79p, 9월 82p, 10월 79p, 11월 76p, 12월 74p

< 현재경기판단 및 향후경기전망 CSI >



자료: 한국은행.

<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자료: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4) 전경련 BSI(600대 기업 대상)는 대기업의 시각을, 한은 BSI(약 3,000여 개 기업 대상)는 중소기업의 시각을 더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 한편, 한은 BSI(업황전망)의 명목적 기준치는 100p이나 장기 평균치는 80p임. 따라서 80p는 보통 수준의 경기에 대한 시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판단됨.



(2) 산업별 경기 동향

○ (전산업) 전산업 생산이 지난 7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

- 10월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는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전월대비 기준으로는 감소세를 지속

·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전산업 생산증가율은 9월 3.2%에서 10월에 2.8%로 다소 낮아짐

※ 전산업 생산지수증가율(YoY): 7월 3.8%, 8월 4.8%, 9월 3.2%, 10월 2.8%

· 그러나, 전월대비 기준으로는 10월 생산 증가율이  $\Delta 1.5\%$ 로 7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전산업 생산지수증가율(MoM): 7월  $\Delta 0.2\%$ , 8월  $\Delta 0.1\%$ , 9월  $\Delta 0.4\%$ , 10월  $\Delta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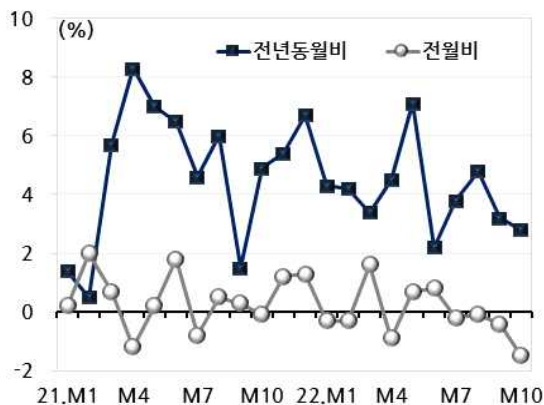
- 10월 중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서비스업과 건설업 생산이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광공업은 감소세로 전환

· 10월 광공업 생산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Delta 1.1\%$ 로 9월의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됨

※ 광공업 생산증가율(YoY): 7월 1.5%, 8월 1.5%, 9월 0.7%, 10월  $\Delta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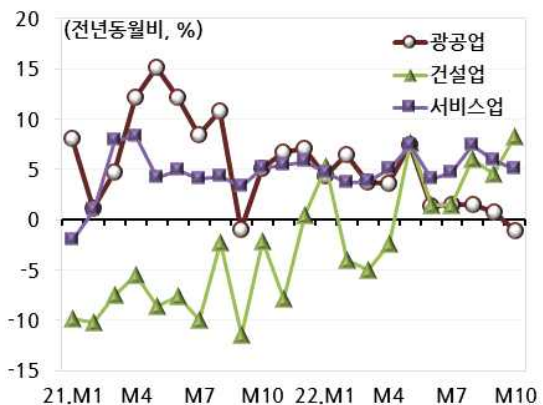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기준 10월 건설업 생산증가율은 8.3%이며, 서비스업과 공공행정 증가율은 각각 5.0% 및  $\Delta 0.2\%$ 를 기록함

< 전산업생산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주요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



자료: 통계청.

○ (제조업) 생산이 감소하고 가동률이 급락하는 침체 국면이 진행 중이나, 출하가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재고 증가율이 빠르게 낮아지는 점은 긍정적

- 10월 중 제조업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평균가동률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모습

· 10월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전년동월대비 22.8%), 기타운송장비(16.0%),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전자부품(전년동월대비  $\Delta$ 26.3%), 1차 금속( $\Delta$ 18.5%), 화학제품( $\Delta$ 13.2%)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1% 감소함

※ 제조업 생산증가율(YoY): 7월 1.5%, 8월 1.4%, 9월 0.7%, 10월  $\Delta$ 1.1%

· 한편,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년 8월(70.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제조업 평균가동률: 7월 75.2%, 8월 75.9%, 9월 75.1%, 10월 72.4%

- 출하증가율이 미약하나마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재고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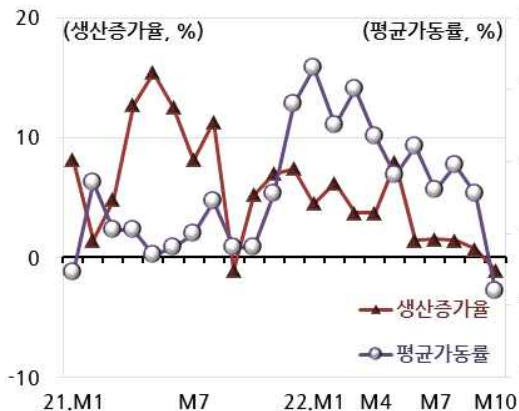
· 출하증가율은 9월 전년동월대비 2.0%에서 10월에도 1.8%의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출하증가율(YoY): 7월  $\Delta$ 1.7%, 8월 1.8%, 9월 2.0%, 10월 1.8%

· 한편, 재고는 작년 '21년 9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증가세를 지속 중이나, 최근에 들어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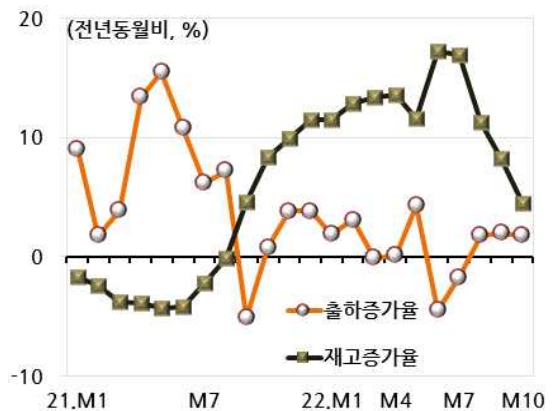
※ 재고증가율(YoY): 7월 16.9%, 8월 11.3%, 9월 8.2%, 10월 4.5%

< 제조업 생산증가율 및 가동률 >



자료: 통계청.  
주: 생산증가율은 전년동월비.

< 제조업 재고 및 출하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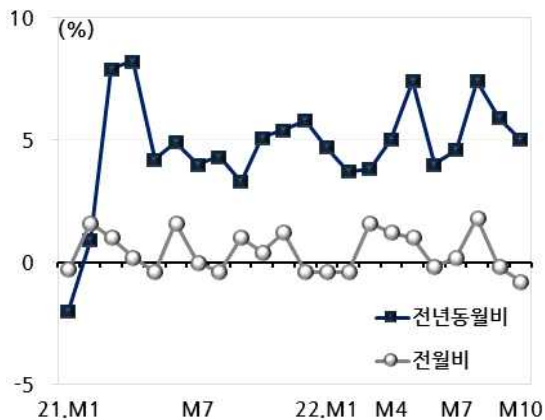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비제조업) 서비스업이 9월에 이어 10월에도 침체를 지속하는 가운데, 건설수주는 10월에 들어 감소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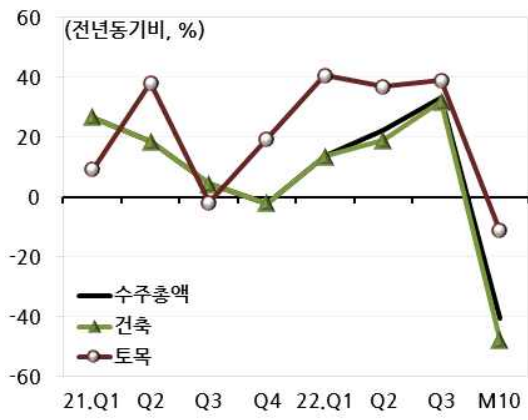
- (서비스업) 서비스업 전월대비 증가율은 9월에 이어 10월에도 감소세를 지속
  - 전월대비 기준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9월  $\Delta 0.2\%$ 에서 10월에는 감소 폭이 더욱 확대되어  $\Delta 0.8\%$ 를 기록함
    -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YoY): 7월 4.6%, 8월 7.4%, 9월 5.9%, 10월 5.0%
    -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MoM): 7월 0.2%, 8월 1.8%, 9월  $\Delta 0.2\%$ , 10월  $\Delta 0.8\%$
  - 전월대비 기준으로 10월 중 보건·사회복지(0.3%),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0.6%) 등이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부동산( $\Delta 3.8\%$ ), 금융·보험( $\Delta 1.4\%$ ), 운수·창고( $\Delta 1.5\%$ ), 숙박·음식점( $\Delta 1.4\%$ ) 등이 감소함
  
- (건설업) 건설업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10월 중 토목 부문과 건축 부문이 모두 감소
  - 10월 건설수주 증가율은 토목 부문이 전년동월대비  $\Delta 11.3\%$ 의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건축 부문도  $\Delta 47.8\%$  감소함
    - ※ 토목건설수주 증가율(YoY): 2분기 36.9%, 3분기 38.9%, 9월 99.3%, 10월  $\Delta 11.3\%$
    - ※ 건축건설수주 증가율(YoY): 2분기 18.9%, 3분기 31.9%, 9월 33.7%, 10월  $\Delta 47.8\%$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



자료: 통계청.

< 건축 및 토목 건설수주액증가율 >



자료: 통계청.

### 3. 향후 경기 리스크 요인과 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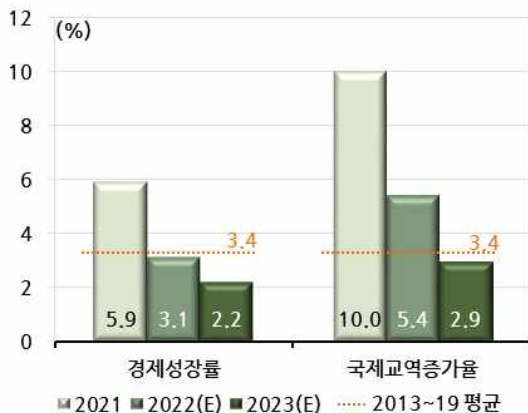
#### (1) 경기 방향성 결정 리스크 요인

- 현재 한국 경제에는 세계 경제 불황에 따른 수출 침체, 국지적 리스크 재확산에 따른 공급망 불안, 고금리에 따른 내수 시장 위축 등의 리스크 요인이 존재

#### ① 세계 경제 불황에 따른 수출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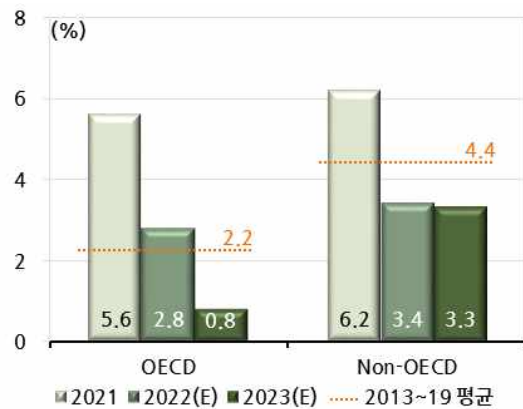
-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지면서 수출 경기의 급랭 가능성이 증가
  - 최근 국제 기관들은 일제히 2023년 세계 경제 상황이 코로나 이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고
    - 최근 IMF와 OECD 경제 전망의 공통점은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이 2022년보다 크게 하락한다는 것과 개도국/신흥국보다 선진국 경제성장률의 하락 폭이 더 크다는 점임
  - 세계 경제가 불황 국면에 진입하고 교역 시장의 수요 위축이 나타나면, 우리 수출 경기의 침체 국면 진입이 불가피하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상실될 우려

< 세계 경제성장률 및 국제 교역증가율 전망 >



자료: OECD Economic Outlook(Nov. 2022).

< OECD 및 비OECD 경제성장률 전망 >



자료: OECD Economic Outlook(Nov. 2022).

② 국지적 리스크 재확산에 따른 공급망 불안

○ 2022년 말 2023년 초의 시기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및 중국의 방역 상황 등의 불확실성으로 공급망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이 상존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어,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우려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럽 천연가스 가격(ICE TTF 선물, EUR/Mwh)은 11월 25일 현재 124.4유로로 지난 8월 26일 연중 최고치 339.2유로보다는 하락함

- 그러나 유럽 지역이 에너지 성수기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경우, 가스, 석유 등의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이외 원자재 시장 전반의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최근 중국의 확진자수 급증과 도시봉쇄 조치로 중국 내 물류망이 단절되면서 중국산 원부자재 조달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 2022년에 들어 세계 팬데믹 상황은 안정되는 추세이나,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신규확진자수는 11월 23일 5만 5,616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치였던 지난 4월 14일(2만 9,520명)을 크게 상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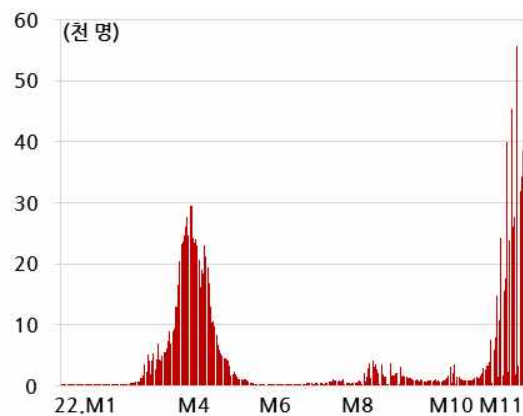
- 현재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주요 도시 봉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국산 중간재 조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됨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산 원자재의 세계시장 대비 비중(2020년 기준)>



자료: OECD.

< 중국 COVID-19 신규확진자수 추이 >



자료: Our World in Data.

③ 고금리에 따른 내수 시장 위축

○ 과도한 금리 상승의 속도에 민간 경제주체들이 적응할 시간이 없어, 가계의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기업 자금 조달 시장이 경색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동반 침체될 가능성이 우려

- 고금리에 따른 부채 상환 부담이 급증하면서, 가계의 구매력이 위축되고 소비 심리가 악화되는 모습

- 가계대출 금리 선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PIX)<sup>5)</sup>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10월 현재 3.98%로 1년 전(2021년 10월 1.29%) 대비 3배가 급등함
- 이에 따라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6월 기준치(100p)를 하회한 이후 침체세를 지속하면서 11월 현재 86.5p에 그치고 있음

- 한편, 고금리의 영향은 기업 자금 조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들의 투자 위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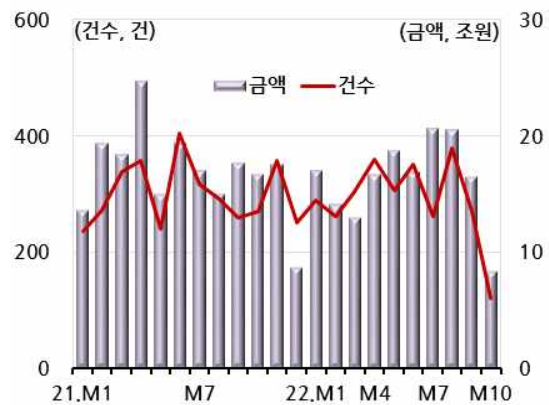
- 10월 회사채 발행액 규모는 8조 3,000억 원으로 9월(16조 원) 대비 약 절반 규모로 축소되었으며, 발행 건수도 같은 기간 270건에서 120건으로 축소됨
- 최근 주식시장의 약세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고, 고금리로 간접금융(금융권으로부터의 차입) 비용도 높은 상황에서 채권시장에서의 자금 조달마저 위축될 경우 기업 투자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음

< 코픽스 금리 및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은행.

< 회사채 발행 건수 및 금액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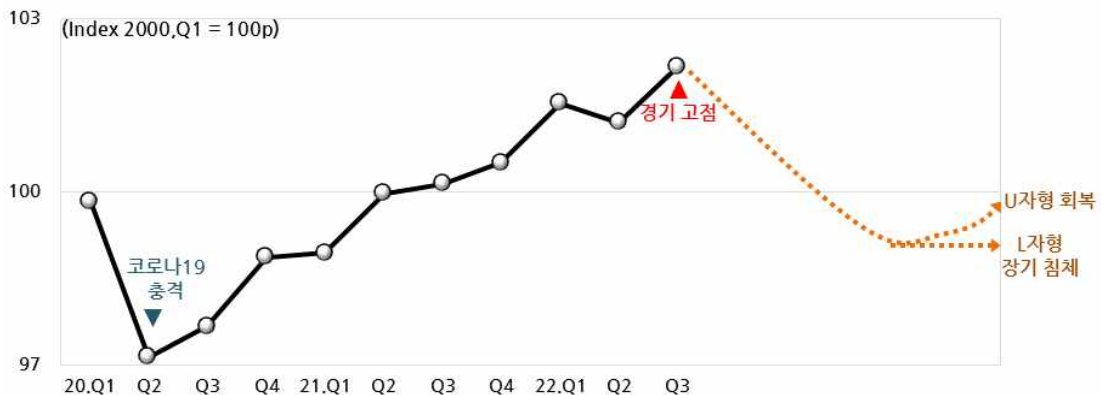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5) 코픽스(COPIX, 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는 은행연합회가 국내 8개 은행들로부터 신규수신상품 금리 정보를 받아 산출하는 은행의 자금 조달 시 비용을 의미하며, 가계대출 금리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금리임.

(2) 현 경기 판단 및 향후 경기 전망

- (현 경기 판단) 2022년 4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가 침체되고 내수 활력이 크게 약화되는 국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
  - 수출 경기가 이미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였으며, 최근 주요 대내외 기관들이 일제히 2023년 세계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출 경기는 당분간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또한, 그동안 경기를 받쳐주고 있었던 내수 시장이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건설기성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가 정체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있음
  
- (향후 경기 전망) 2023년에 들어서면서 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지면서 본격적인 침체 국면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U'자형 또는 'L'자형의 경기 추세를 가질 것으로 전망
  - **중립적 시나리오('U'자형)** :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의 충격이 이어지면서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이 지속되나, 2023년 어느 시점에서 반등의 전환점이 마련되면서 완만하게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는 경로임
  - **비관적 시나리오('L'자형)** : 2023년 중 경기 반등의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하여 침체가 2024년까지 이어지는 경로임
  - **낙관적 시나리오('V'자형)** : 한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극적인 해결 등과 같은 긍정적인 이슈로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면서 수출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하는 경로임

< 시나리오별 경기 추세 전망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4. 시사점

첫째, 향후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물가 안정'이 아닌 '불황 극복'에 두고, 침체의 폭과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기 변동성 완화'에 주력해야 한다.

- 최근의 급격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생각할 때 정부의 2023년 경제운용방향의 목표는 '물가 안정'보다는 '불황 극복'에 보다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임
- 재정지출에 있어서는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 상반기에 집중될 필요가 있어 2023년 예산의 조기집행률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최근의 내수 시장 위축의 원인 중 하나인 고금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미국의 정책금리를 따라가기보다는 한국 시장 상황에 맞는 독립적인 통화정책 방향 수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둘째, 최근 경제 심리의 급격한 냉각에 대응하여 소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최근 소비 심리 악화는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불필요한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한 신속한 공급 확대, 유통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관행 단속 등에 주력해야 할 것임
- 한편, 경제 불확실성 속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냉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기업 자금 조달 시장 안정을 위한 미시적 대응 강화, 신기술·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장 규제 완화 등의 노력이 요구됨



셋째, 경제의 주된 성장 동력인 수출 경기 급랭을 막기 위하여, 민·관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과 대응 여력이 취약한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 최근 구매력이 높아진 원자재 수출 국가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의 트렌드와 해당국 정부의 정책 변화 등을 신속히 파악 및 분석하고 시장 진출 가능성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우리 수출 유관 기관들의 노력도 필요함
- 또한, 시장 여건 변화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수출 경기가 크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무역보험 및 수출물류비 지원 확대 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임
- 한편, 최근 중국의 방역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난 2분기의 경우처럼 도시 봉쇄로 물류망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응하여, 핵심 원자재 및 부품에 대한 수입 다변화 노력과 공급망 위기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산업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넷째, 건설업 불황 가능성에 대비하여 계획된 주택공급 정책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추진과 전방 산업인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 최근 건설업계가 원자재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고금리의 영향으로 자금 조달마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자금 시장에 대한 선제적인 긴급 유동성 공급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새정부의 신도시 건설이나 주택공급 정책의 집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건설 시장의 수요 위축을 완화시켜야 할 것임
- 특히, 건설업의 전방 산업인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하여, 마지막 남

아 있는 시장 핵심 규제인 DSR의 단계적 완화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2023년 정부의 SOC 예산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되었기에 근본적인 제약은 있으나 조기 공공 발주를 통해 건설 경기의 침체를 완화시키는 노력이 요구됨

다섯째, 경기 침체는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의 확충과 복지 정책의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 계층의 소득 감소 폭이 더 커지고 이자 부담이 더 높아지면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일자리 지원 사업 강화, 정부 보증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의 전환 확대, 영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유예 등의 미시적 대책을 통해 취약 계층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임
- 한편, 복지재정지출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 보다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제한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함 **HRI**

주 원 경제연구실장(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